

산골 노스님의 아름다운 회향

전남 용덕사 주지 종수스님

6년간 모은 2천4백만원 불교TV·동국대에 쾌척

한 노스님의 '아름다운 회향'이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상좌의 부축이 없으면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30여 년 동안 산골 절에서 바깥 세상과는 무관하게 살며 불사에 매진해온 비구니 종수(78세·용덕사 주지)스님이 20일 모처럼 서울 나들이를 했다. 자급난을 겪고 있는 불교TV와 불교영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동국대에 1천만원과 1천4백만원을 각각 회사하기 위해서다. 이 돈은 지난 6년간 신도들이 약 사드사라, 양말 사신으시라며 건넨 보시금을 한푼도 쓰

지 않고 알뜰하게 모은 금액이다. 종수 스님이 30년 동안 일구는 용덕사가 위치한 전남 무안군 해례면은 만민교회 이재룡 목사의 고향이자 성지로 조성돼 있는 곳. 교회만 18곳이 들어서 있다. 그야말로 신도 하나 늘기기가 힘들고, 절 살림을 꾸려가기도 벅찬 지역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의 곳곳을 채우기 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기 위해 노스님이 용돈을 푼돈이 모은 것이어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하지만 종수 스님은 "물 바구니 전에 부처님께 빌어먹은 밥값의 대가로 치르는 것일 뿐 자랑할 일이 못된다"며 인터뷰를 극구 사양했다. 종수 스님의 상좌 스님은 "신도



들이 노스님을 위해 보시한 돈이 있지만 지금껏 단상을 위해 쓰시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평소 절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스님의 말씀을 오늘에서야 깨달았다"고 또 "평소 노스님은 이웃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울 줄 알아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스님의 삶이 바로 그랬다"고 귀띔했다.

도원선 기자 (psdo@buddhapia.com)

"장기수 송환은 남북화해의 길"

비전향 장기수 송환추진위 공동대표 성관 스님

"비전향장기수를 조건없이 송환하는 것은 남북 화해와 부처님의 자비·인권사상을 실현하는 상생의 길입니다."

불교장기수추진회 상임대표이자 '민족화해와 통일을 위한 비전향 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인 성관(수원포교당 주지)스님은 22일 서울 카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넓힌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비전향 장기수를 그 어떤 사상과 이념, 주의를 떠나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송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관스님은 "승한 대상자의 기준과 사치문제나 상호주의에 따른 선별적 시차별 송환을 주장하는 것은 냉전적이고 반인도주의적인 사고"라면서 "민족의 화해는 분단으로 인한 아픔을 풀기 보다는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고 치유하는 대승적 자세를 보일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비전향 장기수의 무조건적인 송환은 국제인권협약의 전향하지 않은 장



기수는 출소후 거주지 선택의 자유권을 지닌다는 원칙에 따라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지난 98년 7월 4일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을 통해 남북 화해와 통일의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 불교장기수추진회를 조직한 성관 스님은 그간 이들에 대한 생활재정 후원사업, 매달 통일사랑방 개최, 민주민족열사 영묘묘원 조성사업(과주 보광사), 비전향 장기수 및 양심수 석방사업 등을 펼쳐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부처님오신날 봉축위 연등축제 시상식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위원장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는 20일 을 연등축제 참가단체 시상식을 거행했다. 봉축위에 능인 심원, 연등상에 서울 봉은사, 특별공로상에 한마음선원이 각각 선정 수상했다. 또 정진상은 도선사·보문종·관음사·경국사·정토법당·유니텔 부처님나라, 장려상은 자암·진각종 조계사 관문사 청년회와 동방불교대학이 수상했다.



자원봉사원 산불피해지에 성금 전달

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18일 강릉시 사천면 산지일대에서 방생선원, 사천왕사, 원당사, 홍제포교인 불자들과 함께 산불피해지역 풀씨파종 행사를 가졌다. 연합회는 이주민들이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금과 풀씨파종 후원금, 대불련 성금 등 총 600만원과 원당사에서 보시한 쌀 100kg을 강원도청에 전달했다.



부산 직장 직능 신행단체 대표자 간담회

조계종 포교원은 20일 부산불교연합회 회의실에서 부산지역 직장·직능 불교신행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범어사 포교국장 지중 스님을 비롯 30여명의 신행단체장들이 참석한 이날 상인 스님(포교원 신도국장)은 7월 8~9일 열리는 제2회 전국 직장·직능 신행단체 지도자대회 설명회를 갖고 부산 신행단체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군불교진흥회 육군 백두산부대 위문

군불교진흥회(회장 정각스님)는 13~14일 육군 백두산부대를 방문해 '종교지도자 전방부대 방문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회장 정각 스님, 자용(수국사 주지) 스님, 원광(삼장문화포교원장) 스님, 국방부 군종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갈라TV 1대와 금일봉, 카세트 3대, 초코파이, 과일 등을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일주문

불교회관 원감에 취임했다.

지장정사 태화 정인범회

도원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은 27일 대구 지장정사 태화정인범회 및 백중49일 천도기도 증법사로 참석했다. (053)767-8105

불광사 창건 22주년 법회

지법 제주 불광사 주지는 30일 오전 11시 불광사 창건 2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64)767-2580

건강정보사이트 개설

이근후 이화의대 신경정신과 교수(본지 논설위원)는 30일 올림피아공원내 올림피아파크에서 생활건강정보 사이트 'clinicpark.com' 오픈기념행사를 갖는다.

시민 참선강좌 열어

양재흥 용주사 수원포교당 부설 경기불교대학 총동문회장은 25일 수원 포교당 법당에서 수원시민을 위한 참선 무료강좌를 열었다. 이날 참선 지도 및 강의는 동국대 선학과 홍호 스님이 맡았다.

결식이웃기기 팬사인회

김영동 작곡가는 18일 결식이웃 돕기에 앞장서고 있는 광고기획팀 '제(화해) CD 100장을 기증하고 결식아동에서 결식이웃 돕기를 위한 팬사인회를 가졌다. 이날 김영동씨는 "결식이웃 돕기는 '제'에 담긴 고자 했던 자연과의 화해, 인간과의 화해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인사

동국대 △불교대학원장=서운길 △연세대학교 원장=유광진 △산업기술환경대학원장=홍영식 △문화대학장=김경배 △이과대학장=염준근 △사범대학장=정진환 △화학생장=김용기

최종석·방귀희씨 불이상 수상



불이회(회장 홍라희)가 선정, 시상하는 제15회 불이상 수상자로 연구 분야 최종석(동국대 사회교육원·사건원) 교수, 실천 분야 방귀희(KBS 방송작가) 씨 등 2명이 선정됐다.

독일 자르브뤼켄 대학에서 종교학을 전공한 최 교수는 '한국토착신앙과 불교의 습합과정'(1998년), '연기와 공의 종교신학적 이해에 대한 고찰'(1999년), '신라용신신앙의 기원과 전개'(2000년) 등 각종 연구 논문 발표 및 활발한 학계 활동으로 연구부문에 영예를 안았다. 또 <속대문학>을 발행하며 KBS 및 BBS 방송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방씨는 81년부터 방송포교에 매진해 왔으며, 최근에서 저자신문 '함께 읽는 신문'을 발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에 그대로 투영한 공로가 인정됐다. 시상식은 7월 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에서 열린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나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 심고 싶어"

장애인 다이빙대회 참가 중앙승가대 대원스님

"지난해 승가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복지관에 근무하면서 새로운 장애복지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장애인 스쿠버 프로그램입니다." 6월 15일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시에서 열린 '일본 장애인 다이빙 전국대회'에 장애우 5명을 이끌고 참가한 대원스님(중앙승가대 법안사무처 사무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우들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당당하게 사회를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고 말한다. 다이빙은 장애우들에게 수압에서



오는 전신마사지 효과를 주고 심폐기능을 강화시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스님은 장애복지프로그램도 이처럼 그들의 재활에 도움이 되고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스님은 98년 중앙승가대 '천수천안수중동우회'를 창립했으며 앞으로 장애우 다이빙센터 등 체육시설을 만들어 장애우 복지활동에 전념할 계획이다. 김두식 기자

희귀병 앓는 유현탁 군 수술비 없어 막막

도·와·주·세·요



제주 중앙중 2학년인 유현탁군(사진)은 어려서부터 단순한 감기에도 병원에 며칠씩 입원해야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와 초등학교 4학년때 만성육아종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 병은 몸의 저항력을 떨어뜨려 조그만 상처에도 몸이 썩어 들어가는 희귀병. 지난 4월 병세가 악화돼 수술을 받았지만 허반신이 마비돼 현재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항생약을

치료/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보험적용이 안되는 약물이 많아 약 한 달에 5백만원 정도이고 그동안 입원비와 수술비가 2천만원이 훨씬 넘는다. 생활보호대상자로 병간호를 위해 생업까지 포기한 유군의 부모로서는 막막하기만 하다. 도와주실 분: 유홍국(011-696-2357) 조홍은행(367-04-672968 예금주 유현탁)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동산불교대학 2000년도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불교학, 불교문화학)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7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근본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불교상당론·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육사사상·정토사상·북한불교사	무전장스님(본대학원장)·최봉수(동국대교수)·주명철(동국대교수)·정병조(동국대교수)
		오 국 군 (동국대교수)·박 종 (동산불교대교수)·남수영(동국대교수)·계환스님(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반야사상·법화사상·화엄사상·불교사회복지론·불교학개론·선종사상·불교미술·밀교사상·포교방법론·북한불교교론	박 종 (동산불교대교수)·김성철(동국대교수)·권만경(동국대교수)·보각스님(승가대교수)·권기홍(동국대교수)·최홍석(동국대교수)·윤일수(문화재단연구원)·홍석스님(승가대교수)·한정석(금강선원이사장)·김포기(동국대교수)·유진스님(동국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정규반(100명) 주간반(50명) 통신반(50명) 불교복합학과(20명)	불교를 적극 신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2000년 6월 15일~ 2000년 7월 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당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학일시 2000년 8월 5일(토)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중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현각(조계사앞) ☎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 불교문화학과 지방생은 북한불교사, 북한포교방법론을 이수하여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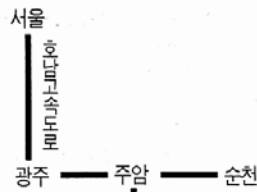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제6차 전국 염불 만일회 공 보성 대원사 여름성지 대회 고

전국 염불만일회에서는 2000년도 부터 염불 10성지를 찾아 지방대회를 개최기로하고 아래와 같이 여름대회를 마련하오니 회원과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바랍니다.

- ◆ 일 시 : 2000. 7. 16 ~ 7. 17
- ◆ 장 소 : 전남 보성군 대원사 ☎ 0694) 852-1755
- ◆ 내 용 : 1) 본행사 2) 염불 보살계
- ◆ 참가비 : 3만원 (염불조기, 교재 및 식사제공)
- ◆ 신청대상 : 개인, 사찰, 단체, 가족단위
- ◆ 신청방법 : 전화신청 후 은행 계좌 입금
- ◆ 교통편 : 개인별 대원사 도착

■ 경기·서울 지역 참가자 :
조계사 앞 출발 → 2000년 7월 16일(일) 오전 6시
(※단, 동참자는 참가비·교통비 포함 55,000원을 미리 접수바랍니다.)



전국 염불만일회

서울·중로구 견지동 13
TEL : 02)732-1206~7 FAX : 02)732-1207